

# 온정 답지...담양의 설 따뜻했다

라이온스클럽·전국한우협 담양 지부 파밍하우스·메디치팜 쌀·한돈 등 기탁 LG전자 담양지점, 침수 가전 수리 등 군, 보훈가정·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전국한우협회 담양군지부가 설을 맞아 담양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한우 72kg을 담양군에 기탁했다.

수년 가구의 가전 300건(3000만원 상당)을 무료로 수리했으며, 시각장애인협회에 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지원했다. 파밍하우스(대표 강준규)는 룰케이크 100

상자(150만원 상당)를, 메디치팜(대표 이선용)은 쌀 100포(29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담양군은 최근 지역 취약계층과 보훈가정 1304세대와 사회복지시설 22곳을 방문해 설 위문품 1426점을 전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매년 명절이면 잊지 않고 기탁해 주는 지역민들께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다산실업 이복재·미래전기 손영술 대표 아너 소사이어터



(우)다산실업 이복재(맨왼쪽)대표이사 와 (우)미래전기 손영술(왼쪽에서 세번째) 대표이사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각각 1억원씩 기부를 약속하고 118·119번째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대표와 손 대표는 고교 동창으로 오랜 기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살아온 이웃사촌이다.

이들은 "아너 소사이어터 가입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쉬운일은 아닌 것 같다"며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었던 나눔을 실천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나 남기고 가야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나눔이었다. 그 꿈을 친구와 함께 이뤄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GIST, 삼성전자 '휴먼테크논문대상' 4개팀 수상

금상·동상·장려상 2개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삼성전자 주최하는 제27회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금상을 비롯해 동상, 장려상 등 총 4개팀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금상에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김민석·이길주(사진·지도교수 송영민)씨, 동상에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석사과정 배민환(지도교수 전해곤)씨, 장려상에는 석사과정 강민형, 박사과정 이길주·이중훈·김민석(지도교수 송영민)씨와 신소재공학부 박사과정 김해솔(지도교수 최창혁)씨가 선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김민석·이길주씨는 '파이버 소재를 이용한 렌즈없는 광학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 시스템'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광학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 시스템과 달리 렌즈와 같은 별도의 광학 소재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광학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김민석

이길주

차세대보안소재로 매우 높은 경장력을 가진다. 동상을 수상한 배민환씨는 '다관 계 그래프를 이용한 보행자 경로 예측 시스템' 연구에서 장면 내 모든 보행자를 시공간 그래프로 형상화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표현했다. 배씨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본래의 목적지 방향으로 경로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휴먼테크논문대상은 삼성전자가 1994년부터 선정하는 논문상으로 금상, 동상, 장려상은 각각 상금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을 받는다. /채희중 기자 chae@

## 광주대 기획처 황요한 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표창

광주대학교 기획처 황요한(사진) 씨가 최근 2020년 대학정보공시 업무 유공자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교육정책 수립에 공헌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다. 대학정보공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과 교육·연구·연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에 선정됐으며, 황 팀원은 2014년 5월부터 대학의 대학정보공시 총괄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최창호 산림조합회장, 영암 고령 농가에 생필품 전달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창호(사진) 회장이 최근 영암군 서호면 고령 농가를 찾아 생필품과 마스크를 전달했다. 14일 밝혔다. 산림조합 광주전남 지역본부 소속 22개

회원조합은 각각 명절을 앞두고 '선풍이 사랑나는 이웃돕기'를 펼쳤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정의 손길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인사

- ◆환경부
  - ◇과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태근
  - ◇과장급 승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배문환
- ◆관세청
  - ◇과장급 전보 ▲광양세관장 김기재 ▲목포세관장 이해진 ▲여수세관장 이소연
  - ◆사람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남지회 사무처장 김동규

##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5 나의 살던 고향은	0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유 별의여신 50 뽀뽀 친구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희망풍차 함께, 나눔
⑬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UHD 송터(재) 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45 내고향 전파 스페셜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⑮	35 미니디(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⑯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재)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최중우를 만국 유망기 캠프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0매 전라도	50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 특집 모노크롬, 도시를 깨우다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⑳	30 누가 뭐래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㉒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출렁하다	40 특집 100보토론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㉔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1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펜트하우스 코멘터리 20 나이트 라인 55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테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배어 배어사 : 곰 버라이어티
07:30 보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19: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에메이징 북아메리카 -오로라 판타지, 멜로니아트>
09:00 뽀뽀뽀 뽀로로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겨울이 가기 전에 1부 그곳에 행복이 산다>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앤 문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당 유치원(재)	22:45 바닷가 사람들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5일(음 1월 4일 甲午)

<p>36년생 정국을 짚어서 말해 줘라. 48년생 장기적인 동력원이 되어 줄 것이다. 60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다. 72년생 합의하에 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애리라. 84년생 때가 때이니 만큼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96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는 경행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89</p>	<p>42년생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보면 오해가 풀리면서 불편이 해소 되리라. 54년생 적절한 융통성은 윤택유 역할을 하리라. 66년생 객관적 자료를 참고할 일이다. 78년생 추대를 단 힘의 행하면 협조자가 생기리라. 90년생 실제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잘 하자. 02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36, 78</p>
<p>37년생 맹점을 놓치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49년생 맞대응하려 하지 말고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61년생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73년생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고 진을 정비해야 할 성국이 놓여 있다. 85년생 대인의 모색이 절실한 필요한 국세에 놓여 있다. 97년생 정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3, 50</p>	<p>43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 55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 받게 되리라. 67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79년생 성부어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91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동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03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5, 86</p>
<p>38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50년생 좋고 나쁨을 따질 계제가 아니니 확실히 추진하고 볼 일이다. 62년생 문 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74년생 도 전체 불만 가치가 충분하다. 86년생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명확히 이행해야 발생이 없다. 98년생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8, 64</p>	<p>32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44년생 점점 좋은 조건으로 변해가는 성국이요. 56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68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이 기반이 생긴다. 80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매우 유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열어 두자. 92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행운의 숫자 : 14, 85</p>
<p>39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51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느니라. 63년생 허구 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갖게 되리라. 87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99년생 대응하기에 응당한 성국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1, 80</p>	<p>33년생 믿고 의지하여 왔던 바를 갑자기 잃을 수도 있는 운로이다. 45년생 착수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57년생 구석을 맞추다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69년생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 81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93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75</p>
<p>40년생 무모함과 용기는 확연히 구분 되어야만 한다. 52년생 실제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64년생 안에서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76년생 일관된 소신을 바탕으로 하는 언행이 바람직하다. 88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00년생 약간의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87</p>	<p>34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46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58년생 불완전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70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문어간다. 82년생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4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 행운의 숫자 : 31, 83</p>
<p>41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53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65년생 국부적인 면에 대한 추구가 더 낫다. 77년생 재복이 자래하니 진중하게 대응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89년생 단순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1년생 생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6, 91</p>	<p>35년생 중북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년생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파악하고 보자. 59년생 윤색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71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83년생 중등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이 평안할 것이다. 95년생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4, 58</p>